



10일 새벽 베를린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프랑스를 물리친 이탈리아 선수들이 우승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伊, '11m 룰렛게임'서 佛 끄다

120분 사투 끝 1-1...승부차기 5-3 승  
트레제게 통한의 실축 '아트사커' 침몰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와 '레 블뢰' 프랑스가 10일 오전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 월드컵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마주쳤다. 두 팀은 7만2천명의 대관중 앞에서 120분의 사투를 벌였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프랑스가 전반 7분 지네딘 지단의 페널티킥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이탈리아는 전반 19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의 헤딩골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두 팀은 연장전까지 격렬한 혈투를 벌였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고 황금빛 찬란한 월드컵의 향배는 '운명의 11m 룰렛게임'으로 넘어갔다.

이탈리아는 12번 키커 안드레아 피를로와 마테라치가 침착하게 킥을 골문에 꽂았지만 프랑스는 1번 실범 윌토르의 킥이 들어간 뒤 두번째로 나선 다비드 트레제게가 찬

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 밖에 떨어졌다.

'레 블뢰'는 가슴이 찢어졌고 결국 이계 운명을 갈랐다.

이탈리아는 3·4번 키커가 골을 성공시켰고 4·3으로 앞선 상황에서 5번 키커 파비오 그로소가 페널티 지점에 섰다. 성공하면 우승하는 순간 그로소의 킥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차게 골망을 흔들었고 아주리 군단은 우승의 환희에 젖었다.

이날 경기는 프랑스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전반 1분 앙리가 파비오 칸나바로와 부딪혀 그라운드에서 쓰러진 뒤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 바짝 긴장했던 프랑스 벤치는 5분 후 오라시오 엘리손도 주심의 휘슬에 환호했다.

전반 6분 말투다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문전으로 돌진하는 순간 마테라치가 뒤쪽에서 슬쩍 발을 갖다댔고 말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지체없이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1분 뒤 '마에스트로' 지단이 키커로 나섰다.

지단은 잔루이지 부폰과 눈싸움을 벌인 뒤 천천히 다가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인사이드 킥을 찍어쳤다. 부폰은 반대쪽으로 다 이방했고 볼은 느릿느릿 날아갔지만 크로스바 밑동을 때린 뒤 골 라인을 넘어섰다. 지단은 멍청하다 골 사인을 본 뒤 번쩍 오른쪽 손을 치켜들었다.

이탈리아는 세트 플레이에서 동점골을 만들었다.

전반 19분 피를로가 오른쪽 코너킥을 감아올리자 앙팀 선수들이 문전에서 일제히 솟구쳤다.

공격에 가담한 193cm의 장신 수비수 마테라치는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파트리크 비에라를 앞에 놓고 돌고래처럼 뛰어올랐고 앞 아마에 정확히 명중한 헤딩슛은 골문 왼쪽 상단을 세차게 흔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지단 골든볼 영예



'영원한 이별'  
MVP로 위안



'아트사커' 프랑스의 주장 지네딘 지단(34.레알 마드리드)이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최우수선수인 골든볼을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0일(이하 한국 시간) 지단이 골든볼 기자단 투표에서 2천120포인트를 얻어 이탈리아 주장 파비오 칸나바로(유벤투스·1천977포인트)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 ■ 지단 '눈물의 퇴장'

무엇이 '아트사커'의 대명사 지네딘 지단(34)을 그토록 화나게 했던 것일까.

프랑스 축구의 '자존심' 지단이 그의 축구 인생을 마감하는 2006독일월드컵 축구대회 이탈리아와 결승에서 뜻밖의 몸싸움으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순간 경악시켰다.

연장 후반 6분, 1-1의 평행한 긴장감이 흐르던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후반 연장 5분께 프랑스 선제골 주인공 지단과 이탈리아 동점골의 드라마를 연출한 마르코 마테라치는 이탈리아 진영에서 조용한 말싸움을 벌였다.

표정의 변화없이 몇 마디를 나누면서 걸어나오는 순간 지단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강하게 받아버렸다.

순간 마테라치는 그 자리를 훌쩍 주저앉았고 이탈리아 선수들은 오라시오 엘리손도 주심을 돌려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심은 선심에게 달려가 상황설명을 듣고, 골장 지단에 다가선 뒤 뒷머리에서 '빨간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퇴장명령.

지단은 레드카드를 받고 주심에게 항의를 했지만 워낙 명백한 반칙을 저지른 터라 쏟아지는 눈물을 곱씹으며 10명의 동료들 그라운드에 남긴 채 슬슬 라커룸으로 향했다.

한편 지단은 이번 퇴장으로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뒤 퇴장당한 선수를 일컫는 '가린 샤를렘'에 가입하는 불명예마저 안게됐다.

## '야신상' 부폰 "아깝다 대기록"

지단에 실점...최장시간 무실점 무산

2006 독일월드컵축구에서는 그 어떤 팀도 '빛장수비(카테나치오)'로 유명한 이탈리아 수비벽을 겨우 넘어섰다 하더라도 '거미손' 수문장 잔루이지 부폰(28·유벤투스·사진)까지는 좋지 못했다.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이 1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독일 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를 꺾고 24년만에 우승컵을 안은 데는 주전 수문장 부폰의 화려한 선방이 있었다.

부폰은 결승에서 전반 초반 지네딘 지단의 페널티킥만 빼고 프랑스의 유효 슈팅 5개 가운데 4개를 모두 막아내는 철벽방어를 펼쳤다.

특히 연장 전반 9분 윌리 사블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 바깥에서 올린 크로스를 지단이 문전에서 노마크 헤딩슛을

로 연결했을 때만 해도 경기는 프랑스의 승리로 굳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폰이 지키는 이탈리아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골문 위쪽으로 빨려들어갈 것 같은 볼은 몸을 던진 부폰의 손끝에 걸리며 눈 깜짝 할 사이 골대를 넘어 가고 말았다.

이번 대회를 통틀어 그가 놓친 골은 단 2골. 이 가운데 하나는 조별리그 2차전 미국과 경기에서 전반 27분 크리스티안 차카르도의 자책골이었고 나머지는 결승에서 지단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한 것이었다.

페널티킥 골을 내심 노렸던 최장시간 무실점 기록 경신을 날려 버렸지만 이번 대회에서 부폰은 그야말로 신들린 방어를 펼쳐보였다.

이탈리아의 조별리그 3경기(3경기, 8강, 4강, 결승까지) 7경기에서 빠짐없이 선발 출장한 부폰은 총 690분을 소화 해내면서 상대 공격수의 필드골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 한편 부폰은 이같은 활약으로 이번 대회에서 '야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